

외국인범죄의 대처방안 연구

A study focusing on crimes committed by foreign residents
(in Korea) and effective coping strategies

이 동 명*
Lee, Dong-Myung

목 차

- I. 서 : 문제제기
- II. 외국인범죄의 이론배경
- III. 외국인범죄의 실태분석
- IV. 외국인범죄의 대처방안
- V. 결어 및 제언

국문초록

국내체류외국인의 증가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기인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사회에 기여한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들에 의해 다양한 범죄가 반발하고 있고, 범죄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 전문화, 조직화, 흉포화, 광역화 추세에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범죄자의 15%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국내에 입국했다는 분석결과가 발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가능성만으로 여겨왔던 해외 조직범죄의 국내유입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불법체류자들은 집단

논문접수일 : 2011.09.23

심사완료일 : 2011.10.26

게재확정일 : 2011.10.28

* 법학박사·호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으로 몰려다니며 여성을 성추행하고 절도·폭력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데 이들은 그들의 경제적·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범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제어 : 강력범죄, 국제범죄, 국제테러, 국제화시대, 다문화사회, 불법체류, 사회통합, 외국인범죄, 조직범죄

1. 서 : 문제제기

최근 우리나라는 국력신장과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외국인의 입·출국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교류협력국의 다변화 등으로 외국인내방객의 증가와 함께 입국자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과 결혼이주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속하게 변모해가고 있다.¹⁾

이와 같은 우리나라 외국인의 분포는 예전과는 현저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종전에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각국의 외국인들이 단연 우위를 보였으나, 현재는 동남아 등을 망라하는 다국적 외국인들이 분포하고 있는 추세로 변모해가고 있다. 국내체류외국인의 증가는 정책적인 측면도 있으나, 국제사회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사회에 기여한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²⁾를 받고 있지만, 이들에 의해 다양한 범죄가 반발하고 있으며, 범죄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 전문화, 조

1) 2011. 07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수는 약 141만 여명이며, 결혼건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약 14만 여건으로 계속 증가하여 국내결혼건수(약 49만건)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통계월보」, 2011. 07. 6면 참조 : <http://kosis.kr/abroad/abroad-01List.jsp> (2011. 08. 22일 검색)).

2) 국내결혼이주자 및 자녀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60만 여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들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현장과 중소기업 등에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면서 취업자로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이 외국인체류자의 가장 많은 비중으로 장기체류자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임창주,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처방안”, 「발표논문집」, 광주·전남형사법학회, 2011. 08. 1면 참조).

직화, 흉포화, 광역화 추세에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외국인범죄자의 15%는 범죄를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는 분석결과가 발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가능성만으로 여겨왔던 해외 조직범죄의 국내유입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³⁾ 한편 불법체류자들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여성을 성추행하고 절도·폭력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데 이들은 그들의 경제적·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범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외국인범죄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치안수요를 급증시키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동시에 우리사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하나의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 점차 변모해나가고 있으므로 앞으로 다양한 인종적 스펙트럼을 보유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외국인범죄로 인하여 내국인들이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적대적 인식을 갖게 되는 외국인 혐오증을 갖게 된다면 사회통합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국내체류의 외국인범죄문제는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 질 것이며, 이는 곧 외국인 혐오증으로 이어져 국가이익에도 반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국제화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외국인범죄에 대해 이론적인 배경을 비롯하여 외국인범죄의 실태를 공식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파악함으로써 범죄대책을 고찰하여 외국인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불법체류자문제를 포함한 외국인범죄의 현황과 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신용카드위조·총기밀수 등 범죄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이 전체 외국인범죄자의 10.5%를 차지했다(이상열,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6권 1호,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2007, 81면).

II. 외국인범죄의 이론배경

1. 외국인범죄의 개념

외국인범죄란 일반적으로 범죄의 주체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즉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범죄로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형법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5조는 내란 및 외환죄 등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서 범한 경우도 외국인 범죄⁴⁾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⁵⁾에 의하여 체류하는 미군·군속·가족들에 의한 범죄, 중국국적의 조선족, 미국시민권이 있는 재미교포, 일본국적의 재일교포에 의한 범죄도 외국인범죄에 포함된다.

2. 외국인범죄의 유형

외국인범죄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우리나라의 입국·체류·취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범죄로 입국관리(위·변조된 여권으로 입·출국하는 출입국 사범 등)나 체류시스템(불법체류자·취업자 등)을 무력화시키는 모든 범죄를 말하고, ②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로는 합법·불법을 막론하고 체류하는 외국인의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 등)를 비롯하여 폭행 등의 범죄를 말하며, ③ 처음부터 범죄목적을 위해 지능적으로 입국한 자의 범죄(마약유통·환투기·불법자금세탁 등)로 분류될 수 있다.

4) 외국인범죄는 이른바 국제협약에 규정된 범죄(국제간첩, 테러, 조직범죄, 돈세탁, 마약밀매 등) 국제적 범죄와 외국인에 의한 국내 형법위반범죄(살인, 강도, 절도, 강간 등)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외사관련 특별법규위반사범(출입국관리법, 여권법, 외국환관리법 등)과 거류, 체류, 불법체류자, 국외범 외국인범죄를 말한다.

5)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1967. 03. 03일 법률 제1903호로 제정되었고, 세계 80여개국과 체결되어 있다.

3. 외국인범죄의 특징

외국인범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⁶⁾ ① 외국인의 범죄가 국제적인 조직과 연계되어 국제화되고 있다. 특히 마약(코카인·헤로인 등), 총기밀매, 위조달러반입 등의 국제적 밀수조직이나 폭력조직에 의한 범죄에 외국인이 가담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어 국제성 범죄가 문제된다.⁷⁾ ② 외국인의 범죄조직이 집단화·전문화·조직화되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들이 외국인집단지주지⁸⁾를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범죄조직을 만들어 자국민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살인·강도 등의 강력범죄까지 범하고 있다.⁹⁾ ③ 외국인범죄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광역화·국가화되고 있다. 즉 교통수단과 통신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모든 단계에 걸쳐 한 국가의 국경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체류외국인들이 밀집 거주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에 밀집되었던 것이 전국 대도시와 인근의 중소도시로 확산되고 있다.¹⁰⁾ ④ 범죄의 유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 강력범죄(강도·절도 등)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 친·인척을 둔 다른 조선족의 여권을 위조하는 등 국내입국과 위장결혼을 위한 공문서·사문서위조범죄가 급증하고, 신용카드범죄 등의 지능범죄에 이르기까지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⑤ 최근에는 외국인에 의해 발생한 강력범죄가 대폭 증가하면서 점차 외국인범죄가 흉포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엽기적인 토막살인 등의 행위가 발생하기도

6) 임창호, "외국인범죄수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287면 : 이상열, 전개논문, 86면 참조.

7) 예컨대 최근에는 각종 국제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바, 러시아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홍콩의 삼합회 등 범죄조직들이 국내 범죄조직과 연계해 침투되어 있다. 그 범죄영역도 부동산 매입, 카지노투자, 마약밀매, 불법입국주선, 제품밀수출, 농산물반입 등 다양하다.

8) 대표적인 외국인집단지주지는 구로 엔밸동 차이나타운, 리틀도쿄 동부이촌동, 프랑스타운 반포동 서래마을, 안산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등.

9) 이외에도 러시아인의 여성매춘 등, 말레이시아인의 신용카드위조단, 태국인의 상습도박단, 중국인들의 전화사기단 등이 점차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10) 예컨대 렌터카를 이용하여 전국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이고, 범행 후에도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수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하고, 성폭행 등에 대항하는 여성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4. 외국인범죄수사의 한계

외국인범죄수사란 수사기관이 외국인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로, 범죄사실을 탐지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외국인범죄수사에는 그 한계성이 있는바, ①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②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소재확인의 어려움이 있으며, ③ 신원확인의 곤란성이 있고, ④ 검거나 증거수집의 곤란성이 있으며, ⑤ 신속한 수사의 곤란성 등의 어려움이 많다.¹¹⁾

Ⅲ. 외국인범죄의 실태분석

1. 국내체류외국인의 현황

개방화·세계화 물결에 맞춰 우리나라에 출·입국하는 외국인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5,212,729명이던 것이 2010년 8,766,915명으로 10년 사이에 355만 여명이 증가하여 최근 10년 사이에 약 68%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향상으로 유학생 및 전문인력 증가,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산업연수생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였다.¹²⁾

이러한 외국인입국자의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도 점증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2000년 491,324명으로 전체인구(47,008,000)의 1%를 넘어선 이후 계속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1,261,415명으로 전체인구의 2.5%를 차지하였고, 특히 2011년 국내체류외국인의 수가 급증하여 07월 현재

11) 임창호, 전계논문, 289-290면 참조.

12) 김재윤, “현행 외국인 범죄 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 제19권 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373면.

141만명을 넘어서 전체인구의 약 2.8%를 차지해 조만간 3%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¹³⁾ 이처럼 급격하게 체류외국인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가 증가한 이유 때문이다.¹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71만 여명으로 국내 체류외국인의 약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미국이 약 14만 여명으로 10% 정도이고, 베트남이 11만여명(7.8%)으로 국내체류자가 많으며, 뒤로 필리핀(5만), 일본(4.7만), 타이(4.1만), 인도네시아(3만), 몽골(3만), 우즈베키스탄(2.9만) 순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약 90%정도가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¹⁵⁾ 아시아계 외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 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을 보면, 취업자격체류외국인이 593,134명으로 전체 외국인체류자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취업자격체류자의 경우 비전문취업이 취업자격체류자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문분야의 취업자가 많다 보니 우리나라 보다 경제발전이 못한 아시아계 외국인 체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의 현황은, 2011. 07. 31일 현재 총체류자는 593,134명이고, 이중 전문인력은 46,500명이며, 단순기능인력은 545,634명이다.¹⁶⁾ 출민국관리법상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제31조) 이러한 외국인등록을 거치지 않는 경우 불법체류자가 된다. 국내 체류 외

13)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mm_06/imm_2011_03.jsp(2011. 08. 19일 검색).

14) 2010년부터 다시 국내체류외국인의 숫자가 증가에 기여한 요인을 살펴보면 국내 일자리 수요증가에 따라 취업목적의 외국인 수가 전년도 대비 17%정도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8%) 및 전문인력(7%)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 및 영주 자격부여대상 확대 등으로 인하여 재외동포(68%), 영주(103%)자격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2010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64면).

15) 이밖에 대만(2.7만), 캐나다(2.2만), 스리랑카(2만), 캄보디아(1.5만), 방글라데시(1.3만), 네팔(1.2만), 파키스탄(1만), 러시아(1만), 인도(8천), 호주(7천), 영국(6.5천), 미얀마(6천), 홍콩(4천), 독일(3.8천), 기타(4.6만)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월보 2011. 07월, 8-19면).

16) 통계월보 2011. 07월, 19면.

국인의 불법체류율은 2001년 총체류자 556,835명 중 277,626명으로 50%에 육박하던 것이 2003년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조치”로 인해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그 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223,464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3년 연속 점차 감소하고 있다. 불법체류외국인 비율은 2004년 2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후 6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¹⁷⁾ 2007년 이후 국내체류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외국인이 점차 감소하여 2011년 현재 총체류자 1,261,414명 중 168,514명으로 13.4%에 불과하다. 이는 2008년 “불법체류외국인 감소 5개년 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2010. 05. 06~08. 31(4개월) “자진출국프로그램” 시행 등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시행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¹⁸⁾

2. 외국인범죄의 현황

최근 외국인체류자의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범죄자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1년부터 해마다 증가추세는 상당히 가파른 증가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8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42% 증가한 총 20,623명의 외국인 범죄자들이 검거되었다.¹⁹⁾ 향후 외국인체류자가 증가할수록 외국인범죄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2010년 경찰에 검거된 총범죄자는 1,784,953명이었으며, 이 중 외국인범죄자는 22,543명(1.5%) 이었다. 체류외국인의 비율이 2.5%에 비하면 외국인범죄자 비율은 체류외국인 비율에 비해서는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외국인범죄가 전체범죄에서 1%를 넘은 후 2년 만인 2010년 전체 범죄 1.5%에 육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빠른 증가추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체류외국인 비율에 비하여 범죄자비율이 낮다고 하여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처해있는 열악한 사회적 위치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17) 2005년 27.3%, 2006년 23.3%, 2007년 21%, 2008년 17.3%, 2009년 15.2%, 2010년 13.4%로 꾸준히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18) 2010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644-648면 ; 임창주, 전개논문, 6-7면 참조.

19) 경찰청(범죄정보관리시스템)홈페이지(2011. 08. 19일 검색).

많이 저질러지는 외국인범죄, 내국인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외국인범죄의 노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범죄를 바라보아야지, 단순히 범죄발생건수에 대한 통계수치만으로 외국인범죄를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²⁰⁾

(1) 죄종별 현황

외국인범죄는 특질에 따라서 “출입국과 관련된 범죄”·“외국인이 생활하면서 일으키는 범죄”·“범죄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자의 범죄”로 분류된다.²¹⁾ 유형별로 범죄내용을 살펴보면, 입국과 관련한 범죄는 위조와 취업알선 등과 같은 지능범죄가 해당되고, 외국인이 생활하면서 일으키는 범죄는 살인, 강도, 절도, 폭력범죄가 주종을 이루고, 범죄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자의 범죄는 마약류나 경제범죄가 포함된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외국인범죄의 유형을 총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지능범과 폭력범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까지는 폭력범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지능범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후 2009년부터 다시 폭력범죄(5,322건)가 지능범죄(4,792건)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집계되었다.²²⁾ 이처럼 폭력범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사건도 증가할 수 있음을 뜻한다.

2010년도 검거된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전체범죄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49%(22,543명)이다. 2008년 1%를 넘어선 이후 계속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균 외국인범죄비율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유형으로는 지능범(12.86%), 마약류(9.35%), 살인(6.87%), 강도(3.96%), 절도(1.55%)를 들 수 있다. 국내체류 외국인비율(2.5%)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유형은 앞서 언급한 범죄유형 중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유형이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범죄비율은 체류 외국인 비율에 미치지 못하

20) 박영숙, “외국인범죄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제18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0, 78면.

21) 최인섭·최영신,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84-85면.

22) 2010년도 전체범죄건수는 23,334건이다(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홈페이지(2011. 08. 19일 검색)).

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위조죄와 같은 지능범의 비율은 전체 범죄자의 10%를 넘어서고, 마약류사범도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출입국과정, 체류자격획득, 취업·정착, 송금과정에서 내국인들에 비하여 각종 공문서 등을 위조행사 등 지능사범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체류외국인의 마약류범죄가 외국인범죄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마약류범죄는 2007년까지는 평균 외국인범죄율에 머물다가 2008년 폭증한 후 현재와 같이 평균 외국인범죄율보다 크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마약청정국가'로 널리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을 마약류의 증계지로 악용하려는 국제범죄조직이 국내 체류의 외국인과 국내불법체류의 외국인을 통해 마약류의 밀반입 시도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²³⁾

외국인범죄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국내생활 중에 일으키는 범죄 중 흉악범죄 비율이 높다는 점은 장차 외국인 범죄가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범죄 실태에 대해 더 심각하게 느끼게 할 수 있다.²⁴⁾ 또한 마약류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출입국 과정이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조직적이며 전문적이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크다고 할 수 있다.

(2) 국적별 현황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외국인범죄자의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외국인범죄자의 국적 분포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외국인범죄(23,334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적은 중국이다. 중국 국적의 범죄율이 13,986건으로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중국

23) 윤 황, "한국에서 외국인의 범죄실태 분석 : 국내체류자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 54호, 한국동북아학회, 2010, 233-234면.

24) 임준태, "외국인 범죄대책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9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313면.

국적 외국인범죄가 많은 것은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과 한족들이 여권 위·변조, 위장결혼 등으로 인한 불법입국과 사기범죄의 증가에 따른 것과 연관이 있다. 중국에 이어서 몽골, 베트남, 태국, 미국, 러시아 국적 범죄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외국인범죄가 많은 국적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범죄로 인해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주한미군이 과거 10여년 사이 1/3로 줄어들면서 미국은 외국인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⁵⁾ 몽고는 체류자에 비해 범죄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국내체류자는 전체 외국인체류자의 1.5%에 불과하지만, 범죄율은 전체 외국인범죄의 5-6%를 차지할 정도로 범죄율이 높은 국가이다. 그 외에도 베트남, 태국, 타이 등의 국가가 외국인범죄인이 많은 나라들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 국적 외국인의 경우는 1990년대에는 외국인범죄 비율이 높은 국적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점차 외국인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 관광목적의 입국자와 체류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적별 범죄발생계수(인구 10만명당 범죄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범죄발생계수는 3,097명으로 나타났다.²⁶⁾ 국내 체류외국인의 범죄발생계수는 1,851명으로 우리나라의 범죄율 보다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인 범죄의 범죄발생계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국적은 중국(2,297), 베트남(1,407), 몽골(4,188), 미국(981), 타이(2,556), 필리핀(1,044), 우즈베키스탄(1,699), 대만(2,528), 파키스탄(3,915), 일본(562) 등으로 나타났다. 파키스탄의 경우 외국인 범죄숫자 자체는 많지 않지만, 국내체류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범죄발생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만한 나라는 몽골이다. 몽골은 범죄발생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몽골의 범죄발생계수는 유일하게 파키스탄과 더불어 우리나라 범죄발생계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몽골은 우리나라

25) 2009년의 경우 미군의 범죄는 300여건으로 전체 미국인 범죄(1247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경찰청 2010년 국회제출자료).

26) 우리나라의 총범죄는 2010년 현재 48,875,000건이며, 범죄인은 1,514,098명이다(임창주, 전개 논문, 14면).

에 체류하는 인원은 30,266명(2.1%)에 불과하여 국내체류외국인 비율(2.5%)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범죄율은 5~6%를 상회하고 있다. 대부분 외국인범죄자 비율이 체류외국인 비율에 미치지 못하지만 몽골의 경우 그 비율을 두 배가 넘는다. 이는 앞으로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3. 외국인범죄의 증가

일반적으로 입국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범죄발생도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한 해 100만명 가까이 증가해 외국인 입국자가 1,000만명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나 입국자수가 많은 국가의 외국인이 반드시 범죄를 많이 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009년(7,833,998명)~2010년(8,766,915명)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오히려 외국인범죄는 2009(23,344명)~2010(22,543)에 오히려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입국자의 증가가 바로 범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입국외국인은 단기적으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²⁷⁾

그러나 외국인체류자와 외국인범죄와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2008년까지 매년 20만 여명씩 증가하다가 2009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외국체류자는 다시 2010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1. 07월 현재 141만 여명의 외국인체류자가 존재한다. 2001년~2010년 사이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한 2004~2008년 외국인범죄도 함께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외국인체류자 증가속도보다 외국인범죄의 증가속도가 외국체류자 증가속도보다 2배가량 높다는 점이다. 현재는 외국인체류자가 2.5%를 상회하는 정도이지만, 선진국의 경우처럼 5%를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외국인

27) 서거석,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호, 비교형사법학회, 2003, 439-440면.

범죄가 전체 범죄의 1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범죄에 대한 적실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체류자의 증감은 경제적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어려웠던 2007년의 경우 외국인 체류자가 담보상태를 보이고 있다가 경기가 회복되는 2009년 이후 다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범죄의 경우 경제적 여건과 더불어 정치·사회적 여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과 2008년 급격한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외국인범죄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외국인입국자와 외국인 체류자와 외국인범죄와의 관계는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함께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입국자와 체류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범죄에 대한 보다 적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외국인수와 외국인범죄발생과의 관계를 보면, 불법체류외국인수와 외국인범죄발생은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체류자격의 불법·합법을 불문하고 범죄는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03년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조치”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그 절대숫자 뿐만 아니라 비율에 있어서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대로 외국인범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통상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내의 다른 실정법도 쉽게 위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존재라고 위협시한다. 그렇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취업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불법체류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문제가 되는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볼 수도 있다.²⁸⁾

28) 임창주, 전계논문, 24면.

Ⅳ. 외국인범죄의 대처방안

1. 외국인범죄의 재검토

외국인범죄에 실태현황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외국인범죄의 경향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의 외국인범죄는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전체 외국인비율이 국내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전체범죄에서는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독일은 외국인의 비율은 8.8%이고, 외국인 피의자 비율은 22%를 차지하고, 오스트리아는 외국인의 비율은 전체인구의 약 9.55%로 외국인범죄 비율은 19.9%를 차지했다. 구미 선진국의 경우 외국인의 비율이 높을 뿐더러 외국인의 범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⁹⁾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여 건수 대비 2.2%, 인원대비 4.5%를 차지하고 있으며,³⁰⁾ 유럽의 국가들은 단일 대륙에 국가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 외국인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범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② 외국인범죄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흉악범죄와 마약류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살인(6.87%), 강도(3.96%)와 같은 흉악범죄의 비율이 전체 외국인범죄율(1.5%)보다 월등히 높다. 외국인이 국내생활 중에 일으키는 범죄 중 흉악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장차 외국인범죄가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범죄 실태에 대해 더 심각하게 느끼게 할 수 있다. 또한 마약류범죄 등은 조직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중에 일부 범죄는 국내의 범죄조직과 외국의 범죄조직이 연계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규모의 특성을 갖기도 한다.³¹⁾ 따라서 출입국 과정이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비해서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고 조직적이며 전문적이기 때문에 우리

29) 임준태. 전계논문. 316-320면.

30) 이승주. "일본인 외국인 범죄 실태와 정부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2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207면.

31) 최인섭·최영신. 전계보고서. 104면.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크다고 할 수 있다.

③ 외국인범죄와 외국인 불법체류자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외국인범죄를 주로 저지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외국인범죄의 변화는 외국인불법체류자의 변화와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특히 2004년 이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꾸준히 그 수와 비율면에서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범죄자의 원인으로 주목받았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외국인범죄의 대처방안

우리나라는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부족한 산업현장의 인력수급과 국제결혼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국적을 획득한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2003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가 폐지되어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제도만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0년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입국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정되었다.³²⁾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한 정보가 법무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바, 이러한 정보를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통합외국인 신원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통합시스템의 구축과 외국인신원확인시스템(AIPS)³³⁾ 및 외국인생체정보시스템

32) 출입국관리법 제38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17세 이상인 사람...

33) 법무부에서는 '승객정보확인시스템(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 APIS)'을 도

을 통한다면 외국인범죄에 대처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② 외국인의 비율에 비하여 범죄발생의 빈도가 비교적 높은 특정국가의 외국인 총체류자 증가동향에 초점을 맞춘 범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외국인범죄의 경우 외국인범죄자가 많은 국적과 범죄발생계수가 높은 국적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계수가 높은 국가의 경우 국내 체류자수나 전체범죄자수는 높지 않아 오히려 간과할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발생계수가 높아 오히려 범죄자비율이 높은 국적에 비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외국인범죄의 대책은 불법체류자의 증가나 외국인범죄발생건수가 아닌 범죄발생계수가 높은 특정국가의 외국인총체류자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③ 외국인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이해하고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외국인들의 문화적 특성, 취업동향 및 생활패턴과 연관이 있는 특징들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차별화된 외국인범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외국인범죄자들의 진술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전국의 의사경찰인력(지방청 : 160명, 경찰서 : 415명, 합계 575명)³⁴⁾의 인력으로는 외국인범죄에 제대로 대처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수사요원, 수사전문통역가, 지역연구전문가를 확충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④ 국제범죄의 환경에 상응하는 범죄수사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경찰에서는 “외국인범죄대책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NGO 등과 의사범죄 실태파악 및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활동이나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효율적으로 외국인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요령 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줄로 본다.³⁵⁾

입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항공기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항공사로부터 탑승객의 국적, 성명, 성별, 여권번호, 생년월일, 여권유효기간 등의 신원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박기륜,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경찰학회보』 제14호, 2007, 142-143면.

34) 경찰청(2010년 국회제출자료).

⑤ 외국인범죄를 대처하는데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인권이 보다 충실히 보호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범죄에 대해서는 내국인범죄에 비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경우가 많고, 낙인에 의한 편견이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외국인범죄자에 대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도 형사소송법상 인권보장의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³⁶⁾

3. 외국인범죄수사의 개선방안

외국인범죄수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⁷⁾

① 복잡한 관련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즉 일원화된 법규정을 제정하고, 효율적 수사기법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외국인범죄 관련 서식 등을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② 수사조직 및 수사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수사조직의 강화 방법으로 의사경찰조직을 확대 등 사무분장을 일원화해야 하고, 외국인범죄수사 전문요원을 확충(교육훈련, 귀화외국인의 특별채용 등)하여야 한다.

③ 국내외 관련기관 공조수사의 강화가 필요하다. 즉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지역경찰과 외국인범죄 유관기관 협력방안, 지역주민 및 언론기관 협력 등)를 강화하여야 하고, 국제공조수사를 강화(외국경찰과의 정보교환, 조약 체결국 확대, 해외주재관 확대파견, 인터폴 적극 확대, 공조범위 확대 등)를 하여야 한다.

④ 체계적인 외국인범죄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즉 외국인범죄의 사전정보(외국인 조직범죄 실태파악, 범죄분석부서 신설, 불법체류외국인과 집단거주지역 실태파악, 범죄수법 파악, 다양한 정보원 확보, 경찰의 동향조사권 부여 등)를 수집하고, 정확한 신상정보의 수집·정리·수정을 하여야 하며, 지문 등 신상정보를 채취하여야 하고, 범죄경력의 체계적 관리를 하여야 한다.

35) 이상열, 전계논문, 106면.

36) 임창주, 전계논문, 18-19면 참조.

37) 임창호, 전계논문, 309-328면 참조.

⑤ 효율적인 외국인범죄수사를 실행하여야 한다. 즉 지역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조직·지능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외국인범죄수사 관련하여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고, 유능한 통역요원을 확보(통역인의 전문성 증진, 통역인대우의 현실화, 통역인의 공동 활용, 통역관련 자료집 발간 등)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참고인의 협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를 실행하여야 한다. 즉 외국인피의자와의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영장집행 시에는 인권침해를 최소화(체포·구속이유 설명, 미란다원칙 고지, 압수·수색이유 설명 등)하여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별건체포를 금지하며, 정확한 내용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밖에도 인권존중적 수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수사관은 외국인피의자가 자국의 영사관에 연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피의자를 위해서는 무료통역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질병 등에 걸렸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V. 결어 및 제언

현대사회는 빠르게 세계화·개방화되는 국제화시대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그동안 신장된 경제력과 활발한 국제교류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개방화 대열에 진입하게 된 가운데 국내에 입국·체류하는 외국인도 140만 명 시대를 맞이했으며 그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국경을 넘나드는 노동력의 이동은 이제 특정국가에 한정된 이슈가 아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순혈통주의의 지향적 민족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상황을 맞이하면서 외국인범죄와 같은 다양한 형사정책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 산업연수생, 농어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등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범죄는 마약밀수, 무기거래, 화폐위조 등의 국제성범죄와 소위 5대 강력범

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그리고 성추행 등 각종 범죄들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마피아, 삼합회, 야쿠자 등 세계적인 범죄조직들이 유입되어 우리사회를 긴장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저지르는 범죄 또한 잔혹성·전문성·은익성을 띠고 빈발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녕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대처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이며 미온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 또는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범죄가능성만을 이유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적 법질서에 비추어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노동인력 보다는 고급인력의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범죄에 대한 수사를 합리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수사조직 및 수사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국내외 외 관련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외국인범죄의 정보를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인권존중적인 범죄수사를 행할 필요가 있다.

부언컨대 앞으로는 외국인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방안의 수립과 외국인범죄와 관련된 관계기관과 학계 및 사회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과 외국인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훌륭한 옥고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민재,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법무연수원, 2007.
 이윤호, 「범죄학개론(개정판)」, 박영사, 2005.
 임창호, 「범죄수사론」, 법문사, 2004.
 허경희,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2005.
 최인섭·최영신,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3.

- 권오희,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국제역량강화와 범죄수사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보」 7권, 한국유럽행정학회, 2010.
- 김윤영,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확보방안연구”, 「치안논단」 제21호, 치안정책연구소, 2007.
- 김재윤, “현행 외국인범죄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형사정책」 제19권 2호, 형사정책연구원, 2007.
- 류여해,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43권, 한국교정학회 2009.
- 박기륜, “외국인신원확인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4호, 한국경찰학회, 2007.
- 박영숙, “외국인범죄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제18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0.
- 송관현, “외국인 범죄수사 무엇이 문제인가”,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2006. 10.
- 서거석,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비교형사사법연구」 제5권 1호, 비교형사법학회, 2003.
- 윤 황, “한국에서 외국인의 범죄 실태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54권, 한국동북아학회, 2010.
- 이상열,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6권 1호,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2007.
- 이승주, “일본의 외국인범죄 실태와 정부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2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 이창한,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현황과 과제”, 「교정연구」 제40권, 한국교정학회, 2008.
- 임준태, “외국인 범죄대책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9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 임창호, “외국인범죄수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 정상규, “다문화시대의 교정정책에 대한 고찰”, 「교정연구」 제43권, 한국교정

학회, 2009.

최영신,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 『형사정책연구』 제18권 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최영신·김지영·박학모, “불법체류외국인 증가가 공공안전에 미치는 영향”, 2009년 대검찰청 수탁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국가인권위원회, 「미등록 외국인의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2005.

경찰청, 「경찰백서」, 2000~2009.

대검찰청, 「범죄백서」 「범죄분석」, 2007~2010.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2003~2009.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8.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8~20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백서」, 2008~2009.

경찰수사연수원홈페이지(<https://www.kpia.go.kr/Cinsi-Index.asp>).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

기타 정부간행물 참조.

Ayres, I., Super Crunchers, Why Thinking-by-Numbers is the New Why to Be Smart, Bentam Books, 2003.

Conklin, Francis T. & Agnew, Robert, Criminological Theory (Past to Present Essential Readings), Oxford Univ Pe, 2007.

Gerstenfeld, P., Hate Crimes. Causes, and Controls, 2nd edition, Sage, 2010.

Joshua D. Freilich and Graeme R. Newman, Crime and immigration Aldershot, England : Burlington, VT : Ashgate, 2007.

Levitt, S. Dubner, S., Super Freakonmics. Global Cooling, patriotic Prostitutes and Why Suicide Bombers Should Buy Life Insurance, William Morrow, 2009.

[Abstract]

A study focusing on crimes committed by foreign residents (in Korea) and effective coping strategies

Lee, Dong-Myung

Professor, Dept. of Law, Honam University

The increase of foreign residents living in Korea contributes to the positive changes of the global society as a whole. Although the contributions of foreign residents have positively impacted Korean society in many ways, many of these residents are engaging in various crimes that are becoming more organized, intelligent, cruel, and urbanized. As these crimes become more methodical in nature, a reality is created in which these crimes threaten citizens' safety.

Surprisingly, it was reported that 15% of all foreigners in Korea came to the Peninsula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crimes. This proves that the likelihood of non-domestic organized crimes will eventually become a more concerning issue. In the meantime, illegal immigrants and legal residents are joining organized groups to commit sexual crimes against women, acts of stealing, and assault without any sense of repercussion as they are suffering from economical and societal hardships. Immediate response to such crimes is imperative as subsequent crimes are evident.

This paper consisted by following chapters.

- I. Introduction : The current issues at hand
- II. Background theories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 III. An analysis of the current condition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 IV. Effective coping strategies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 V. Conclusion and proposal

Key Words : heavy crime, international crimes, international terror, globalization, multicultural society, illegal alien, social integration, crimes by foreigners, organized crime